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6장은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 평지에서 주신 계명과 율법이 시내 산에서 주신 율법과 동일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를 끝으로 모세는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사사로운 문제까지 다 마무리 짓고 그의 사명을 마치게 됩니다.

### 슬로브핫의 딸들의 요구

민 36장에 나타난 슬로브핫의 딸들의 내용은 민 27장과 연결이 됩니다. 민 27장에서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온 회중 앞으로 찾아가서 그들이 가진 고민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아버지인 슬로브핫이 아들이 없이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이 상속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민 36장은 이제 기업을 물려 받을 딸들이 자라서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될 경우에 므낫세 지파가 줄어들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또다시 모세를 방문한 것입니다(3절,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 같은 문제로 다시 모세를 찾아온 것은 율법에 따르면 여성 상속자의 기업은 결혼과 동시에 여성의 지파에서 삭감되고 남편의 지파에 첨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희년이 될 때까지 언제라도 그 기업을 여성 상속자는 본래 자신이 속했던 지파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 되돌릴 수 있었고 기업을 무르는 절차를 통해서도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즉 슬로브핫의 딸들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희년이 되면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처음에 얻게 하신 지파의 영토가 그들로 인해 줄어드는 것을 미리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그들의 말에 수긍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6-7절,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것은 슬로브핫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종족에게 시집가지 말고 같은 종족인 므낫세 지파에서만 혼인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해결책은 여성 상속자들에 대한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일반적인 율법으로 확정됩니다(8-9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 순종과 그 결과

모세의 명령대로 슬로브핫의 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10-11절,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 결과 슬로브핫의 딸들은 그들이 소유한 기업을 다른 지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들 므낫세 지파에 남기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모세의 말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정해주신 기업의 영토를 개인의 자유로 침범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신 27:17,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는 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옮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훗날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그것을 자신이 소유한 다른 포도원과 바꾸거나 많은 돈을 가지고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나봇은 아합왕에게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왕상 21:3,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러나 이세벨은 아합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이 일로 인해 아합왕을 책망합니다(왕상 21:20,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아합에 대한 심판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주신 기업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 각 지파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직접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어떤 지파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지파는 일부 지역에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주신 경계를 지키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혼인을 했다면 으랏세 지파는 많은 영토를 다른 지파에게 빼앗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로브핫의 딸들은 순종의 열매를 온전히 맺음으로써 그들에게 분배된 땅을 후손들에게 다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대부분 불순종하고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편 슬로브핫의 딸들의 행위는 비록 그들이 당시 여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인 혜택을 적게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과 온전한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진 은사와 외모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조건과는 상관없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러시아의 산발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핵전쟁 위협으로 인해 여전히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가 낀 상황인데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국민들과 군인, 가족들, 난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햄튼 2 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케냐 최인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